담낭 절제술 복강경 수술 응급실 후기 의료

16분 전

https://blog.naver.com/aki_planet/224449188996

올해 부모님의 담낭 절제술을 지켜보면서
담낭, 즉 쓸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갑작스러운 질환임을 알게 되고
수술 진행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웠기에 사진 못 찍었으나.. 글 후기라도 남기고자,,

때는 하루종일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음.
함께한 엄마는 계속 컨디션이 좋으셨음

그러다 저녁이 되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고 속이 안좋아 저녁을 안먹겠다고 하심

걱정되기 시작한건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았음
계속 춥다 하시고 누워서 꼼짝 못하고 밥을 아예 못드심



저녁 9시였고 갈 곳은 응급실 밖에 없으니
심한 몸살이라면 내일 동네 병원 가도 될지, 그냥 응급실을 가야하는건지 고민이 되었음

그러다 인터넷에서
'아팠을 때 제미나이에게 질문해서 위기를 넘겼다'는 후기를 본 기억이 떠오름

엄마가 하루종일 괜찮으시다가 저녁쯤 부터 갑자기 속이 안좋다 하시더니 구역이 나고 위가 갑갑하면서 토하는게 나을것 같다 하고.. 몸살이 엄청 심하고 추위를 타서

갑작스러운 오한과 심한 몸살을 동반한 메스꺼움, 위 갑갑함은 **급성 위장염(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또는 **열을 동반한 전신 바이러스 감염**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추위를 심하게 타는 것은 대개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취해야 할 대처

- **체온 측정 및 보온:** 우선 체온계로 열을 확인해 주세요. 오한이 날 때는 이불을 덮어 체온을 유지해 주시고, 오한이 멈추고 본격적으로 열이 나며 땀이 나기 시작하면 얇은 옷으로 갈아입혀 열을 발산시켜야 합니다.
- **억지로 참거나 유도하지 않기:** 토할 것 같을 때 손가락을 넣어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면 식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토는 참지 말고 비워내게 하되, 누운 상태에서 구토할 경우 이물질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반드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 **당장의 금식과 안정:** 속이 몹시 불편하고 울렁거릴 때는 음식이나 약을 억지로 먹이지 말고 1~2시간 정도 위를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역감이 가라앉은 뒤 미지근한 보리차나 이온음료를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적시듯 마시게 하세요.

즉시 야간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기준

- 배의 특정 부위(우측 상복부나 우측 하복부)를 눌렀다 뗄 때 찌르는 듯한 극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
- 38.5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거나, 의식이 멍해지고 심한 탈진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
- 물조차 전혀 삼키지 못하고 구토가 끊이지 않거나, 피나 커피박(갈색 찌꺼기) 같은 것을 토하는 경우

현재 열이 몇 도까지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나요? 상태를 조금 더 알려주시면 병원 진료가 급한 상황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인 자문이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ai가 열을 재보라고 하는게 아니겠음?!
어째서 체온 측정 해볼 생각은 못했던 것일까
바로 측정 ㄱㄱ

열이 39도인데???

39도는 명백한 고열이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성인의 39도 고열과 극심한 오한, 구역감은 단순 체기가 아니라 **급성 위장관 감염, 급성 담낭염, 신우신염 등 체내 강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급실 이동 및 지금 당장 취할 조치

- **응급실 방문 또는 119 요청:** 밤 시간대인 데다 기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세요. 어머님이 어지러워하시거나 스스로 걷기 힘들어하신다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해열제 복용 여부:** 구역질이 너무 심해 삼키기 어렵다면 억지로 먹이지 마시고 응급실에서 혈관 주사로 해열 수액을 맞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하지 않고 삼킬 수 있다면 위장 자극이 덜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1알만 최소한의 물로 복용시키세요.
- **체온 관리:**
  - 아직도 이를 부딪치며 덜덜 떨고 계시다면(오한기) 체온이 계속 오르는 중이므로 얇은 이불을 덮어주세요.
  - 덜덜 떠는 것이 멈추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면 두꺼운 이불을 걷고 얇은 옷만 입힌 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목이나 겨드랑이를 가볍게 닦아 열을 식혀주세요. (찬물이나 얼음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열 발산을 방해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 **음식 및 수분 섭취 중단:** 위장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이므로 물이나 죽, 소화제 등을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기도 흡인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이미 담낭염을 의심하고 있었다,,대단하다 너)



엄마는 열이 39도였다.
당장 짐 챙겨서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 응급실로 감

쓸개 쪽에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서 ct 찍게 됐어

응급실로 바로 오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39도 고열과 오한에 쓸개 쪽 수치가 높다면 **급성 담낭염**이나 **담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석 등이 담즙이 나가는 길을 막아 담낭에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면 체온이 순식간에 39도 이상 치솟고 심한 몸살과 구역감이 동반됩니다.

CT 검사 이유와 진행 과정

- **CT 확인 사항:** 쓸개(담낭) 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담석이 담도를 막고 있는지,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퍼졌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입니다.
- **조영제 느낌 안내:** CT 촬영 시 혈관으로 조영제가 들어갈 때 온몸이 화끈거리고 소변이 마려운 듯한 열감이 10~20초 정도 강하게 드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니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려 안심시켜 드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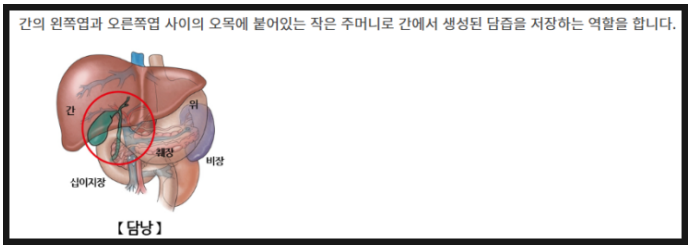
아뿔싸.. 초음파를 찍었는데 담낭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서 ct를 찍게 되었음
의사 말로는 뭐가 꽉 차서 터지기 일보직전이라 무조건 수술할거라고...



네? 갑자기 수술이요?

응급실 간 날이 금요일이여서 주말 내내 같이 있을 수 있었고
일요일에 응급 수술이 잡힘

입원한 엄마를 옆에 두고 밤새 관련 정보를 찾았다.



담낭(쓸개)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였다가,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올 때
이를 분비하여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함

쓸개 질환의 **90% 이상은 '담석(쓸개에 생긴 돌)'이 출구를 막아서** 발생합니다.

어머님이 오늘 저녁에 무언가를 잘못 드셔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돌이 오늘 우연히 입구를 콱 막아버린 것입니다.

발병 과정

- **소리 없는 돌 형성:**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담즙) 성분이 뭉치면서 쓸개 안에 모래나 자갈 같은 돌(담석)이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성인 10명 중 1~2명은 평생 아무 증상 없이 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 **배출 통로 폐쇄:** 식사 후 쓸개가 담즙을 짜내려고 수축할 때, 굴러다니던 담석이 쓸개 출구(담낭관)를 막아버립니다.
- **급성 세균 감염:** 담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히면 쓸개 내부 압력이 급상승하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이로 인해 쓸개 벽이 퉁퉁 붓고 곪으면서 **39도의 고열, 심한 오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단 몇 시간 만에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담낭 관련 수술 후기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잦은 증상인듯..
(근데 원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남?)

담낭 치료나 담낭절제술 이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과 권장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담낭 치료나 수술 직후에는 담즙을 농축해 보관하던 저장고가 사라져 지방 분해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므로, 최소 1~2개월 동안 '저지방·소량 분할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계속 흘러내려 몸이 이에 적응할 때까지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묽은 변, 설사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음식

- **기름진 육류와 튀김:** 삼겹살, 소갈비, 곱창, 튀김류, 전, 치킨 등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 **고지방 유제품 및 소스:** 생크림, 버터, 마요네즈, 치즈, 크림 파스타
- **기름진 탕·국물류:** 사골곰탕, 갈비탕, 설렁탕, 라면 등 기름이 둥둥 뜨는 국물
- **위장 자극 식품:** 술, 탄산음료, 커피, 몹시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권장 식습관과 좋은 음식

- **소량씩 자주 먹기:** 한 번에 과식하면 소화액이 감당하지 못하므로, 평소 식사량을 줄여 하루 4~5번 나누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담백한 저지방 단백질:** 기름기 없는 흰살생선(조기, 대구, 동태 등), 두부, 콩나물, 계란찜, 닭가슴살
- **부드러운 탄수화물과 익힌 채소:** 흰쌀밥, 숭늉, 감자, 단호박, 푹 익혀 부드러운 나물류

수술 하고 한동안 음식은 당연히 자극적인 것X 인스턴트X
(~~엄마 빵이랑 과자 못 먹겠다~~)



지금까지 본 엄마의 아픈 모습 중에 역대급이었음
진통제랑 수액 맞고 토요일이 되니 엄마가 조금 회복하심

〈수술 담당 의사와의 면담 시간〉



의사: 담낭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뭐가 꽉 차서 터지기 일보직전이에요. 이게 터져서 간에 흘러들어가면 패혈증 와요~
간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인 '담즙'이 담낭에 저장되는데, 이게 제때 쓰이지 못하면 계속 침착돼서 덩어리가 생겨요~

엄마는 평상시에 소화불량, 등이 뻐근하게 아파오는 증상을 자주 앓았는데
이게 담낭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소화 안되는걸 누가 바로 담낭을 떠올리나요ㅠ)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사망할 확률이 높았을거라 해서 충격받음

수술은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기로 함.
복강경은 배에 개복하지 않고 배에 1cm 안팎의 작은 구멍 3~4개만 내어 진행하는 수술임

베드에 눕혀서 같이 수술실 앞까지 이동하는데 긴장 MAX



체감상 1시간 좀 넘었나? 나머지 가족들도 와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갑자기 나오는 것임?!

"수술 잘 끝났으니 걱정 마세요~"
(에..? 벌써요..?)

난 2시간 넘을거라 생각했는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1시간 내외에 끝난다더라ㅎ
긴장이 쫙 풀리면서 생각보다 처음에 겁 너무 준거 아닌가하고 울컥함ㅋㅋㅋ



수술 직후 엄마는 계속 춥다고 하시고 너무 아파하셨다.
느끼기에 통증이 출산 때보다 더 아팠다고 한다 ㅎㄷㄷㄷ

내가 할 수 있는건 간호사 말 잘듣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엄마의 증상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는 것 뿐..
(의사 선생님은 거의 안 오시니까ㅠㅠ)

지금 침대에서 바로 해주셔야 할 조치

- **침대 상체 올리기 & 무릎 구부리기:** 침대 헤드를 30도 정도 살짝 올려 비스듬히 눕히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거나 무릎을 살짝 세우게 해주세요. 복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팽팽해진 쓸개의 압박 통증이 줄어듭니다.
- **고개 옆으로 돌리기:** 누운 채로 갑자기 토할 경우 토사물이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베개 위에 옆으로 비스듬히 고개를 돌려두시고, 간호사실에 구토용 곡반(휴대용 그릇)이나 위생 비닐을 요청해 침대 곁에 두세요.
- **물·사탕 절대 금지:** 입안이 텁텁하고 타는 듯해도 물을 삼키면 쓸개가 쥐어짜듯 수축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술이 잡혔을 때 전신마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면 젖은 거즈나 물티슈로 입술만 톡톡 적셔주세요.

통증과 구역질은 참을수록 혈압이 오르고 체력 소모가 심해지니, 지체하지 마시고 간호사 호출 벨을 눌러 주사 처치를 요청하세요.

〈수술 후 해야 할 것〉

1. 침대 상체 올리기: 배 아파서 눕지도 못함. 적응하면서 괜찮아지면 조금씩 내려야 함
2. 걸을 수 있게 되면 가스 배출하기 위해 아파도 걷기
3. 물은 간호사가 말하기 전까지는 금지

〈수술 준비물〉

1. 물병: 수술 직후에는 빨대가 필요할 수도..
2. 슬리퍼: 미끄럼 방지면 좋음
3. 립밤: 입술이 다 튼다ㅠ
4. 충전기
5. 세면도구: 수건, 칫솔/치약, 폼클렌징 등
6. 보호자용 침구: 병원마다 제공이 다르니 참고
7. 로션

일단 기억나는건 이 정도
가스를 배출하면 배가 한결 편해진다고 하니 참고하길

엄마의 수술 원인은
담낭에 꽉 찼던 '슬러지' 때문이었다.

담낭 슬러지란 담낭 내부에 담즙의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음파 검사 시 담낭 안에 돌 가루가 깔려 있는 것처럼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아산병원 +2

슬러지의 구성 성분

담낭 슬러지는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혼합되어 형성됩니다.

- 뮤신 등의 점액성 물질
- 콜레스테롤
- 칼슘 화합물 분당제생병원

담석이나 담낭 슬러지나 어쨌든 담낭을 참 답답하게 한다고..

정확한 원인을 콕 집을 순 없지만
기름진 식습관이나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정확하진 않음)

담낭의 역할이 담즙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다 보니 절제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한다.
뒤늦게 알았지만 주변에 담낭절제술 한 분들이 많더라ㅎㅎ

엄마 어느정도 회복되니 수술비 걱정 start
응급실은 보험 실비 적용이 안된다 어쩌구 들은 내용이 많았음
제미나이가 중간 정산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당장 원무과로 달려감==>

원무과: 응급실도 가셔서 좀 많이 나오셨어요
나: 얼마정도 나왔나요?
원무과: n00만원 정도 나오실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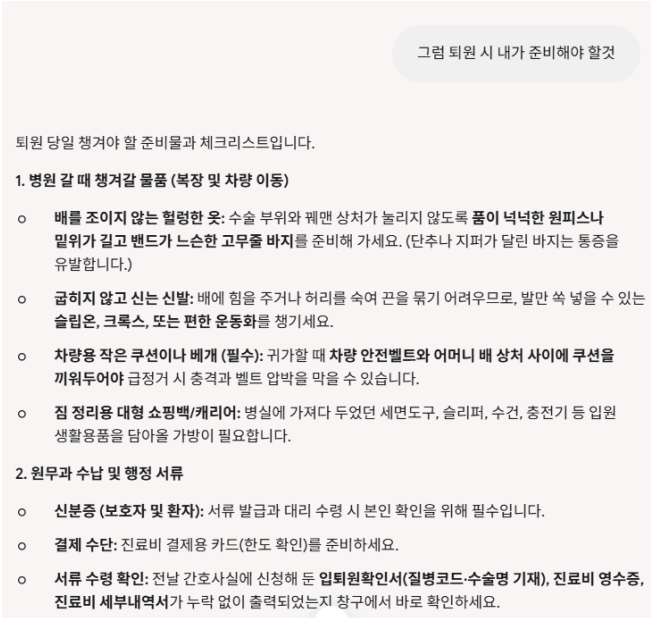


생각한 것보다 2배 나와서 가격이 안 감사하지만
그래도 수술하게 된걸 감사히 여기자~

수술 후 초반에는 하루에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함
가스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 불편한데 가스 나오자마자 편해졌다고 하심
밥은 그냥 입맛이 없다고 반도 못드셨다.

수술 4일차부터는 혼자서 왔다갔다 잘 하시고 많이 회복됐음
물론 중간에 계속 팔에 주사 꼽고 다양한 약들을 맞으셨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수술한지 8일째에 퇴원 완료.


그럼 퇴원 시 내가 준비해야 할것

퇴원 당일 챙겨야 할 준비물과 체크리스트입니다.

1. 병원 갈 때 챙겨갈 물품 (복장 및 차량 이동)

- **배를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수술 부위와 꿰맨 상처가 눌리지 않도록 **품이 넉넉한 원피스나 밀위가 길고 밴드가 느슨한 고무줄 바지**를 준비해 가세요. (단추나 지퍼가 달린 바지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 **굽히지 않고 신는 신발:** 배에 힘을 주거나 허리를 숙여 끈을 묶기 어려우므로, 발만 쏙 넣을 수 있는 **슬립온, 크록스, 또는 편한 운동화**를 챙기세요.
- **차량용 작은 쿠션이나 베개 (필수):** 귀가할 때 **차량 안전벨트와 어머니 배 상처 사이에 쿠션을 끼워두어야** 급정거 시 충격과 벨트 압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짐 정리용 대형 쇼핑백/캐리어:** 병실에 가져다 두었던 세면도구, 슬리퍼, 수건, 충전기 등 입원 생활용품을 담아올 가방이 필요합니다.

2. 원무과 수납 및 행정 서류

- **신분증 (보호자 및 환자):** 서류 발급과 대리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 **결제 수단:** 진료비 결제용 카드(한도 확인)를 준비하세요.
- **서류 수령 확인:** 전날 간호사실에 신청해 둔 **입퇴원확인서(질병코드·수술명 기재),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누락 없이 출력되었는지 창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개인 비서로 취직할래?

퇴원하면서 받은 약 중에 '다제스'가 있던데
광고에서는 3중 소화 되는거라고 하더라
좋으니까 병원에서 처방했겠지

엄마는 지금도 꾸준히 우루사랑 다제스로 관리하고 계심

퇴원한지 일주일 뒤에 실밥 뽑기, 한달 뒤에 ct 촬영
아무 이상 없이 잘 아물었다고 함

현재는 두달 좀 안됐는데 많~이 좋아지셨다
저번에는 치킨도 드시고(~~지중해~~)
조금 과한거 먹으면 소화가 좀 안된다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드시는 듯

사람마다 회복 속도나 적응 정도가 다르니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게 좋을 것 같음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걸 이번에 다시금 새겼고
미리미리 검진하고 대비하는게 정말 중요하다^^



〈담낭 절제술 복강경 수술 후기〉

1. 응급실에서 ct/mri 촬영해서 그런가 비용은 많이 나왔지만, 보험에서 어느정도 나와서 부담은 좀 덜었음
(자세한 비용은 댓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음!)
2. 통증은 다른 후기들과 비슷하게 많~이 아프셨다고 함
3. 수술 후에는 음식 관리해야 함: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밀가루나 자극적인 음식은 안먹는 듯
(과한거 먹으면 설사 할지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살금살금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 범위를 확인하면 됨

수술 후 한달 동안 드셨던 대표적인 메뉴

소고기 미역국	애호박 볶음	계란찜	양배추 쌈
소고기 구이	계란국	콩나물 무침	가지 무침
가자미 구이	된장국	죽	무나물

전반적으로 삼삼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소고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심



〈결론〉

1. 검진한다 생각하고 한번씩 복부 초음파 찍어보는게 좋을 것 같다.
2. 평상시에 소화불량이나 체하는게 잦고 등이 결리기도 한다면 더욱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3. 술 담배 금지: 이건 당연함
4. 의학적으로 당연히 AI를 맹신하면 안되지만 모르는 증상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은 꽤 도움이 된다.
5. 개인적으로 (제미나이에게) 굉장한 도움을 받았고 그냥 의지가 되..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다들

